



불자 세상보기 -승년 특별칼럼

‘맘짱’이 되자

월호 (생계사 강원 강주)

‘열심히 공부하면 신랑얼굴이 바뀐다.’ 어떤 TV광고에 한 학교의 급원으로 이런 내용이...

을 켜거나 코 수술을 하는 등으로 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과연 손이나 얼굴의...

과 운명도 바뀐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상(手相)보다 관상(觀相)이 중요하고, 관상보다 심상(心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요컨대 진정한 예...

따라 표정도 밝아지고 피부도 한층 부드러워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결국 진정한 피부미인은 우유목욕이나 머드팩을 통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수행을 통해서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나 할까?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다. 만일 모든 눈에 보이는 형상이 참다운 형상이 아닌 줄 알면 여래를 보게 되리라.”

이른 바 겉모습으로 참다운 모습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겉모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해

불자의 눈

현대불교신문이 계속 발간된다. 운영 주체인 한마음선원이 커다란 용단을 내었다. (주)현대불교신문사는 12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문사측의 지구책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직원들은 ‘뺨을 쥐는 고통’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새 길을 모색하고 있고 한마음선원 역시 12년 전의 창간 정신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마음’을 냈다. 그 결과로 회생하게 된 ‘현대불교’, 정말 뺨을 쥐는 아픔을 딛고 새로 탄생해야 한다.

‘현대불교’의 희망은 불교계 공동의 미래다

있다. 이 같은 큰 틀 속에서 새 활로를 모색하는데 합의한 이사회 측이나 명퇴자 그리고 남아서 회사를 살려야 하는 이들의 용단이 거북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의 기회는 맞이하였으나, 마냥 즐거워할 할 처지도 아니다. 3차의 합의, 이 정신은 계속 빛을 내야 한다. 경영 정상화만이 해답이다.

관상까지 고치는 ‘성형천국’ 마음 잘 써서 음덕을 쌓아야 관상도 바뀌고 운명도 바뀐다



얼짱·몸짱 상대적인 것일뿐 진정한 아름다움의 향기는 덕과 수행에서 배어 나오는 것

대중 유행한 웃에 인물이 별로인 여자가 번갈아 손을 흔들며 지나가는 차를 세우고자 했다. 결과는 이렇을까? 역시 웃 잘 입고 예쁜 여자의 경우는 많은 차들이 멈추어 서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자 다가왔다.

도적들에게 약탈당해 팔려 왔다는 것이다. 그녀를 붙잡고 여겨 매매계약서를 붙ಿಸ던 뒤, 혼수를 마련하여 좋은 선비에게 시집보내주었다.

지키느라 소복이고 화장을 하지 않았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왕은 세 번이나 되풀이해 말리 왕후를 불렀는데, 그녀는 소복을 한 채로 그 곳에 이르렀고, 그 모습은 마치 해나 달과 같아서 평상시보다 몇 배나 아름다웠다고 한다.

가는 과정의 한 순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꿈과 같고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 같아서 잠시 있는 듯하지만, 막상 옮겨지고자 하면 사라져버린다. 참나생멸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Advertisement for 'DVD Release of the Course on the Four Great Branches of Buddhism'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Includes details about the course, DVD content,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Korean Buddhist Association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